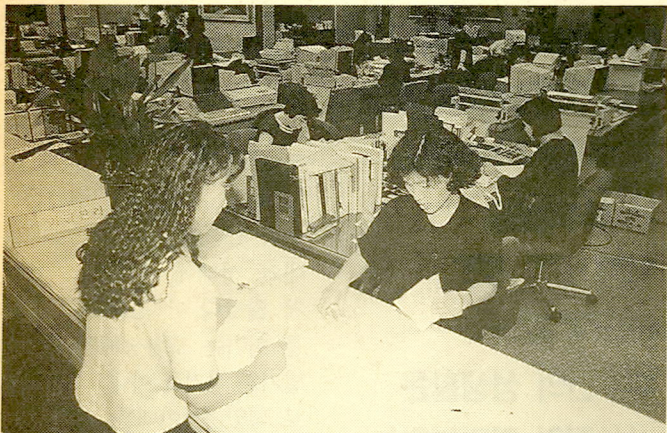


한국은행

남녀차별에 일제히 검정옷 항의

여행원제 폐지 종용하자 신인사제도 도입



▲한국은행 여행원들이 남녀차별에 항의하며 지난 6일부터 검은 옷을 입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한국은행 여직원들이 지난 6일부터 은행측의 신인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일제히 검정옷을 입고 근무하며 남녀차별에 항의하고 있다.

한국은행 여직원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은행측이 '행원은 종합직에 여행원은 일반직에' 일괄되게 배치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지난 3월 31일)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없이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노조와 협의없이 신인사제도 도입

이런 한국은행의 조치는 노동부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노동부는 '일반은행에서 기존의 행원·여행원 제도를 종합직 행원과 일반직 행원으로 바꿔 업무를 구분해 처리토록 하려는 방안과 관련해 기존 여행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으로, 은행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행원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차별의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임금의 격차문제다. 일반직에는 일괄적으로 여성이 배치되고 종합직에는 남성이 배치됨으로써 비록 단일 호봉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에서 차액(종합직에 비해 65%~70%까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반직은 4급(시중은행의 대리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종합직은 1급(시중

은행의 부장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못박아 놓은 상태여서 차별의 고착화를 불러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은행안대로라면 일반직 4급의 실질적 업무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목상의 책임자에 불과하게 된다.

한편 신인사제도가 정착되고 난 후에 채용되는 일반직은 근속기간이 5~8년이 돼야 종합직으로의 전환고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기존의 여행원들은 원칙적으로 종합직으로 전환이 봉쇄

된다. 이에대해 은행측은 10년이상 근무한(현재 한국은행 여직원의 70%)자에 한해 3번의 기회를 줘 전환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지만 전환고시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직 여행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반직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은행안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

로 본·지점 또는 지점 상호간의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부문은 여성노동계가 신인사제도를 '합법적인 성차별제도'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

한국은행 노조의 김인숙 여성부장은 "여행원제 폐지를 종용당한 은행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바꾼 신인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체 여행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은행측이 신인사제도의 폐지하고 남녀평등적인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검은 옷을 벗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